

# 벨지움의 주거공간 사용행태에 대한 연구(Ⅱ)

-화란어권을 중심으로-

## Domestic Space Usage and Behavioral Patterns in Belgium (Ⅱ)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Dutch Speaking Community-

김 미 희\*  
Kim, Mi-Hee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ous types of activities occurring in domestic space and the resident's characteristics in Belgium. Data for this study was collected by questionnaires mailed to 133 staff member, both academic and administrative, working at The Free University of Brussels, a university serving the Dutch speaking community in Belgium. General lineal model and Duncan test were used in analyzing the data.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amilies in the life-cycle stage of having no children are more likely to relax and watch T.V. and do housework in the master bedroom than those in the launching stage. Families in the life-cycle stage of elementary school are more likely to eat meals in the kitchen than those in the launching period.

Second, families made up two members and under tend to do more housework in the master bedroom than those of three and over.

Third, those with aged 30 and under are more likely to relax and watch T.V., and to do housework in the master bedroom than those with aged 51 and over.

Forth, the renter status of homeownership tend to more relax and watch T.V., and to do housework in the master bedroom than the owner

Fifth, those living with less floor space tend to relax and watch T.V. in the master bedroom more than those with larger residences.

---

\* 정회원, 전남대학교 교수

## I. 연구목적 및 배경

주거공간의 디자인 특성은 그 공간의 기능에 필요하고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긍정적인 행태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Fisher, Bell & Baum:1984). 주거환경이 이러한 주생활 행태를 지원하는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환경에서 어떤 행위유형들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기술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공간의 사용자의 계층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거계획분야에서는 주거공간과 주생활의 대응 관점에서 공간사용행태를 접근하여왔다.

국내의 경우, 가족생활주기나 가족유형 같은 가족특성변인에 따른 주생활의 차이(전한중, 박용환, 1987; 신영숙, 1987)와 가족특성변인 뿐만 아니라 평면규모와 소득 같은 사회경제적인 변인들과 주생활양식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김정규, 1988), 시대적 변천과 지역적 차이에 따른 주거양식(최찬환, 1987)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신영숙(1987)은 서울시 30평형대 중산층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여 가족유형, 가족생활주기외 공간사용 측면을 통해서 본 가족간 상호교류행위 및 상호교류장소와의 관련성을 규명하였고 김정규(1988)는 대도시의 3침실형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안방과 거실을 중심으로 하여 발생하는 주생활행위와 가족생활주기, 가족수, 평면규모, 소득간의 관련성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최찬환(1987)은 도시, 농촌간의 주생활행위 및 주생활시간에 따른 실사용방식을 분석한 결과 도시, 농촌간에는 행위에 따른 공간사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한편 김미희와 윤복자(1992a)는 대도시 아파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생활행위와 기거양식을 중심으로 한 공간사용방식의 유형을 제시하고, 이를 거주자의 계층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밝힌 바 있다(김미희외, 1992b). 그 연구에 의하면 평면규모, 가족생활주기, 직업계층 등의 계층적 특성은 공간사용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으며 그 중 평면규모에 따른 차이가 보다

뚜렷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연숙(1992)은 주생활양식을 주거환경에 관련된 생활양식 즉 주택의 선택, 주거공간의 사용,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이는 주거환경에 반응하는 성향이므로 환경적 성향의 개념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시사하였으며 이러한 주생활양식을 거주자의 사회인구학적 또는 경제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주생활 행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주생활 행태를 직업계층과 관련지어 접근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주생활의 형(型)을 직업계층과 대응시킨 니시야마(西山卯三, 1959)의 연구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간의 직업계층적 차이에 따른 주요구를 분석한 스즈끼팀(鈴木成文, 1975)의 연구를 그예로 들 수 있다. 한편 스미스(Smith, 1994)는 주생활의 구조를 사회적 상호작용, 여가, 가사작업, 허드렛 일 등으로 분류하고 이 것들을 개인의 통제와 사회적 결속력이라는 두 차원에 따른 특성을 규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주생활 구조의 두 차원은 가정내의 자녀의 여부와 성역할 성향 변수에 따라서 남성, 여성간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주택을 다르게 사용하고 그것이 개인의 문화적 배경과 선호하는 생활양식을 반영하고(Weisner와 Weibel, 1981) 이러한 맥락하에 로런스(Lawrence, 1979:1984)와 벡텔(Bechtel, 1989)은 비교문화적인 관점에서 주거공간의 의미와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사회적 요소들에 관하여 연구를 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벨지움 거주자의 주생활행태와 주거공간과의 대응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전형적인 주택의 평면구성형태에 근거하여 주침실, 거실·식당, 부엌을 중심으로 가족생활주기, 가족수, 연령, 주택평면규모, 주택소유형태 등의 거주자의 가구특성에 따른 주생활행태의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고유의 문화적 특성에 대응하는 주거공간의 평면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의 표집

조사대상은 벨지움 브뤼셀자유대학(화란어권)<sup>1)</sup>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집하였다. 이 대학 교직원의 구성은 연구직과 일반사무직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표집 결과 일반사무직의 응답비율이 낮아서 대부분 연구직으로 구성된 동질적인 집단이 표집되었다.

조사대상공간은 벨지움의 주거공간의 평면구성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규명된(김미희, 베르뮤텐, 1996) 공동공간의 구성형태가 거실과 식당이 연결되고 부엌은 분리된, LD(living-dining)+K(kitchen)형에 근거하여 거실·식당, 부엌, 그리고 주침실을 선정하였다.

### 2. 조사기간과 방법

1994년 10월부터 12월에 걸쳐 우편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방법은 조사도구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응답케했으며 전화를 이용하여 후속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부분이나 의문사항을 보완하였다. 자료수집은 브뤼셀 자유대학의 공공관계부처에서 교직원 명단을 입수해가지고 전체교직원 2000천여명 중 1600명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205부 회수하였으며 그 중 정선하여 133부가 이용되었다.

### 3. 조사도구 및 내용

공간사용행태란 공간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습관화된 주생활행위의 양태를 의미한다. 이는 주침실, 거실, 식당, 그리고 부엌공간에서 발생하는 행위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공간의 주기능에 대하여 규명하는 것이다. 공간사용행태에 대한 조사도구는 선행연구(벡텔, 1989; 김미희, 1992; 이연숙 외, 1990a)를 참고로 하여 주생활 행위 27개를 선정하고 각 공간별로 주생활 행위의 발생빈도를 '자주', '가끔', '전혀없음'의 세 단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일차 연구에서는 각 공간 별로 공간사

용행태의 구조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각공간별 주생활행태의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 주침실은 취침 및 갠의, 휴식 및 T.V.시청, 의복정돈 등의 세 차원으로 분류되고 거실·식당공간은 접대 및 가족단란, 식사, 개인생활, 가사작업 등의 네 차원으로, 부엌공간은 식사준비, 식사, 의복정돈 등으로 분류되었다(김미희, 1996). 거주자의 가구특성은 자녀의 유무 및 장자의 연령과 학력에 의한 가족생활주기, 가족수, 응답자의 연령 등의 가족특성변인과 주택소유형태, 주택규모 등의 주택특성변인으로 구성되었다.

## III. 조사결과와 해석 및 논의

### 1. 조사대상자의 특성<sup>2)</sup>

####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 거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결혼여부, 가족생활주기, 가족수, 응답자 연령, 응답자 학력 및 월수입 등을 살펴보았다. 응답자의 75.9%가 기혼자였고 미혼자는 24.1%나 된다. 기혼자를 대상으로 하여 자녀의 유무와 딸 자녀의 연령과 학력을 기준으로 가족생활주기를 분류한 결과 자녀가 없는 부부가정이 39.6%로 제일 많고, 초등교육기 이하가 27.7%, 중등교육기는 13.9%, 축소기는 18.8%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가족수의 범주는 1인 부터 6년까지 분포되어 있고, 가족수는 2인이 37.6%로 제일 높으며 그 다음이 4인으로서의 21.1%이고 평균 가족수 3인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2세 부터 64세로 분포되어 있으며 26세 이상 30세 미만이 25.1%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은 31세~50세(17.3%), 51세 이상(12.8%) 순으로 표집되었다. 학력을 보면 대학원 졸업이 69.9%로 나타나 조사대상자 집단은 고학력 집단임이 확인되었다. 월수입을 보면 무소득 부터 5399불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5400불이상이 28.9%로 제일 많고 평균 월수입은 3750불로 나타났다.

2) 주택특성

조사대상 거주자의 주택특성은 주택유형, 주택소유형태, 주택규모, 실수, 침실수 등을 살펴보았다. 주택유형을 보면 단독주택이 42.9%로 제일 많고<sup>3)</sup> 테라스하우스가 30.6%, 아파트 26.8%로 분포되었다. 주택소유형태는 소유가 64.4%로<sup>4)</sup> 임대보다 많았다. 주택규모는 20m<sup>2</sup>부터 500m<sup>2</sup>까지 분포되었으며 이를 범주별로 보면 81m<sup>2</sup>~120m<sup>2</sup>이 27.7%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은 80m<sup>2</sup>이하로서 25.5%가 나타났다. 그 평균치는 152.2m<sup>2</sup>이고 중간값은 120m<sup>2</sup>이었다. 방의 수(욕실·현관 제외)는 2개 부터 13개까지 분포되었으며 6개가 20.3%로 제일 많고 9개 이상이 13.6%나 된다. 그 평균치는 6개로 나타났다. 침실수는 1개 부터 7개 까지 분포되었으며 1개가 7.6%로 가장 많고 그 평균치는 2개였다.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은 주로 브뤼셀(Brussel)이고 안트호프(Antwerp), 겐트(Gent), 할(Halle), 브뤼게(Bruege), 미켈렌(Mechelen) 등 브뤼셀주변의 위성도시이며 화란어권 지역사회이다

2. 거주자의 가구특성에 따른 공간 사용행태

1) 가족생활주기

(표1)을 보면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택내에서의 주생활행위중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 것은 주침실에서 휴식 및 T.V시청행위, 의복정돈이고 부엌에서의 식사행위이다.

주침실에서의 휴식 및 T.V시청의 발생정도에 있어서는 아동이 없는 부부집단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초등교육기, 중등교육기 순이며 축소기에서 가장 낮다. 여기에서 아동이 없는 부부집단과 축소기 집단간에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이 없는 부부집단은 축소기집단에 비하여 주침실에서 휴식과 T.V.시청을 많이 한다.

주침실의 의복정돈에 있어서는 아동이 없는 부부집단에서 그 발생정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중등교육기, 초등교육기 순이며 축소기에서 가장 낮다. 여기에서 아동이 없는 부부가정과 축소기 가정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부가정은 축소기가정에 비하여 주침실에서 의복정돈행위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부엌에서의 식사행위의 발생정도에 있어서는 초등학교시기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아동이 없는 부부, 중등교육기 순이며 축소기에서 가장 낮다. 여기에서 초등교육기 가정과 축소기 가정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 즉 초등교육기 가정에서는 축소기 가정에 비하여 부엌에서 식사행위가 많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2) 가족수

가족수에 따른 의복정돈행위와 주택내에서 주생활행위 중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낸 것은 주침실에서의 의복정돈행위와 거실/식당공간에

Table 1. Activities in the Domestic Space by Family Life Cycle

Dependent Variables	Mean	N	Family Life Cycle	Duncan Multiple Range Test	F-Ratio
Relaxing and Watching T.V. in the MB	1.538	39	No Child	A	2.63*
	1.359	26	Elementary School	A B	
	1.238	14	High School	A B	
	1.222	18	Launching Period	B	
Arranging Clothes in the MB	1.410	39	No Child	A	3.85**
	1.143	14	High School	A B	
	1.135	26	Elementray School	A B	
	1.056	18	Launching Period	B	
Eating in the Kitchen	1.773	22	Elementray School	A	2.62*
	1.410	25	No Child	A B	
	1.391	16	High School	A B	
	1.346	13	Launching Period	B	

\* P < .05

\*\* P < .01

Table 2. Activities in the Domestic Space by Family Size

Dependent Variables	Mean	N	Family Size	Duncan range test	Multiple	F-Ratio
Arranging Clothes in the MB <sup>a)</sup>	1.421	19	1 person	A		3.82**
	1.396	48	2 persons	A		
	1.135	37	3 persons		B	
	1.125	20	4persons & over		B	
Entertainment & Family Interaction in the LD <sup>b)</sup>	2.505	32	4persons & over	A		4.17**
	2.368	34	2 person	A		
	2.269	18	3 person	A		
	1.961	17	1 person		B	

\* P < .01 a) MB=Master Bedroom b) LD=Living-dining Room

서의 접대 및 가족교류행위이다(표2참조).

주침실에서의 의복정돈 행위의 발생정도에 있어서는 1인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은 2인, 3인이고 4인 이상이 제일 높다. 여기에서 2인 이하의 집단과 3인 이상인 집단간에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족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3인 이상인 가정에 비하여 주침실에서 의복정돈행위를 많이 한다.

거실/식당에 있어서의 접대 및 가족교류행위의 발생정도에 있어서는 4인이상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2인, 3인 순이며 1인일 경우 제일 낮다. 여기에서 2인 이상인 집단과 1인인 경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족수가 2인 이상인 가정은 1인인 경우에 비하여 거실/식당에서 접대 및 가족교류행위를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응답자의 연령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주택내의 주생활행위

중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것은 휴식 및 T.V 시청행위와 의복정돈 행위이다(표3참조).

주침실에서의 휴식 및 T.V시청행위의 발생정도에 있어서는 30세 이하인 경우에 제일 높고 그 다음은 41-50세, 31-40세순이며 51세 이상이 가장 낮다. 여기에서 30세 이하인 집단과 31세-40세 집단 및 51세 이상 집단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 즉 30세 이하인 집단은 31-40세 집단이나 51세 이상 집단에 비하여 주침실에서 휴식과 T.V.시청을 많이함을 알 수 있다.

의복정돈행위의 발생정도에 있어서는 30세 이하인 집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41세-50세, 31-40세 순이며 51세 이상 집단이 제일 낮다. 여기에서 30세 이하 집단과 51세 이상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 즉 30세 이하 집단이 51세 이상 집단에 비하여 의복정돈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Activities in the Domestic Space by Age of Respondents(N=126)

Dependent Variables	Mean	N	Age of Respondents	Duncan Range Test	Multiple	F-ratio
Relaxing and Watching T.V. in the MB	1.615	45	30 & under	A		4.36**
	1.432	27	41 - 50	A B		
	1.315	37	31 - 40		B	
	1.176	17	51 and over 51		B	
Arranging Clothes in the MB	1.400	45	30 & under	A		2.82*
	1.296	27	41 - 50	A B		
	1.203	37	31 - 40	A B		
	1.059	17	More than 50		B	

\* P < .05

\*\* P < .01

Table 4. Activities in the Domestic Space by Homeownership

Dependent Variables	Mean	N	Homeownership	Duncan Multiple range test	F-ratio
Relaxing and Watching T.V. in the MB	1.570	45	rent	A	5.40*
	1.354	80	own	B	
Arranging Clothes in the MB	1.411	45	rent	A	6.33*
	1.200	80	own	B	

\* P &lt; .05

## 4) 주택소유형태

주택소유형태에 따른 주택내의 주생활행위의 차이를 보면 연령과 비슷하게 주침실에서 휴식 및 T.V시청행위와 의복정돈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낸다(표4참조). 휴식 및 T.V시청행위와 의복정돈의 발생정도를 보면 둘다 임차자가 소유자보다 높으며 두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임차자는 소유자에 비하여 주침실에서 휴식 및 T.V시청과 의복정돈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평면규모

평면규모에 따른 주택내의 주생활행위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 것은 주침실에서 휴식 및 T.V시청 행위뿐이다(표5참조). 이 행위의 발생정도에 있어서는 평면규모 80㎡ 이하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121-160㎡, 그리고 81-120㎡순이며 161㎡이상에서 제일 낮다. 여기에서 80㎡이하와 81-120㎡ 및 161㎡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평면규모가 80㎡이하인 응답자에서는 81-120㎡과, 161㎡이상인 응답자에 비하여 주침실에서 휴식 및 T.V시청행위가 많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거주자의 계층적 특성에 따른 주생활행위의 차이를 살펴보면 거실·식당에서는 가족수가 둘 이상인 경우가 하나인 경우에 비하여 접대와 가족교류가 더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부엌에서는 가족생활주기가 초등교육기인 경우가 축소기에 비하여 식사행위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 또한 주침실에서 가족생활주기가 아동없는 부부가정은 축소기 가정에

비하여, 응답자 연령이 30세 이하인 경우가 31세-40세 집단과 51세 이상집단에 비하여, 주택소유형태가 임차자인 경우 소유자에 비하여, 평면규모가 80㎡이하인 경우가 81-120㎡과 160㎡이상에 비하여 휴식 및 T.V시청행위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침실에서는 가족생활주기가 아동없는 부부가정인 경우와 축소기 가정에 비하여, 가족수가 둘 이하인 경우가 셋 이상인 경우에 비하여, 응답자의 연령이 30세이하인 경우가 51세이상인 경우에 비하여, 임차자가 소유자에 비하여 의복정돈 행위를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벨지움 거주자의 주생활행태와 주거공간과의 대응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주거공간의 사용행태의 구조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가족생활주기, 연령, 가족수 등의 가족특성변수와 주택소유형태, 평면규모, 등의 주택특성이라는 거주자의 가구특성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조사분석 및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첫째, 가족생활주기의 단계가 아동이 없는 부부집단은 축소기 집단에 비하여 주침실에서 휴식 및 T.V시청과 의복정돈을 보다 많이하고 초등교육기 집단이 축소기 집단에 비하여 부엌에서 식사행위가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둘째, 가족수가 둘 이하인 가정에서는 셋 이상인 가정에 비하여 주침실에서 의복정돈을 많이 하고 가족수가 둘 이상인 가정은 하

나인 가정에 비하여 거실·식당에서 접대 및 가족교류행위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

셋째, 응답자의 연령이 30세 이하 집단이 31-40세이거나 51세이상 집단에 비하여 주침실에서 휴식 및 T.V시청을 더 많이 하고 30세 이하 집단이 51세 이상 집단에 비하여 주침실에서 의복정돈행위가 보다 많이 이루어진다.

넷째, 주택소유형태가 임차자인 경우는 소유자에 비하여 주침실에서 휴식 및 T.V시청행위와 의복정돈행위를 보다 많이 수행한다.

다섯째, 평면규모가 80m<sup>2</sup>이하인 집단은 81-120m<sup>2</sup>이거나 161m<sup>2</sup>이상인 집단에 비하여 주침실에서 휴식 및 T.V시청행위를 더 많이 수행한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 벨지움의 주거공간 사용형태는 부분적으로 가족생활주기, 가족수, 응답자의 연령 같은 가족특성변수와 주택소유형태, 평면규모 등의 주택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변수들은 주택의 평면계획시 사용자 집단을 총화하는 유용한 지표로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결과를 한국의 공간사용형태와 비교분석하여 우리고유의 주거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미래 디자인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주

- 1) 브뤼셀에는 동일한 이름의 두개의 브뤼셀 대학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불어권 대학이고 나머지는 화란어권 대학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란어권 대학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 2) 자세한 내용은 김미희 등(1996:18)의 연구를 참고하시오.
- 3) 1991년도 벨지움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자료 (P.16)에 의하면 단독주택(MAISON INDIVIDUELLE SEPARÉE)의 비율은 36.6%임
- 4) 1991년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자료(P. 40)에 의하면 주택소유(PROPRIETARE)의 비율은 64.5%임

## V. 참고 문헌

- 김미희(1996). 벨지움의 주거공간 사용형태에 관한 연구(1). 전남대학교 가정과학연구소, 가정과학연구, 제6집, PP. 39-48
- 김미희, 베르뮤텐 (1996). 벨지움 주택의 평면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7권 제1호, PP.15-24
- 김미희(1992). 대도시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양식:평면규모 30평 및 40평형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희·윤복자(1992a). 평면규모 30평 및 40평형대 아파트 거주자의 공간사용방식(I),-안방, 거실, 식당/부엌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권 10호 (1992.10). PP.25-39.
- 김미희·윤복자(1992b). 평면규모 30평 및 40평형대 아파트 거주자의 공간사용방식(II),-거주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권 10호 (1992.11). PP.3-13.
- 김정규(1988). 아파트 단위평면의 특성과 거주자의 주의식 및 주생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영숙(1987). 주거공간 사용측면에서 본 가족간 상호교류형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연숙·김미희·오찬옥·이숙영·최수현(1990). 주거공간내에서의 주생활행위 및 행위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 7권 3호 통권 29호. PP.21-34.
- 전한중·박용환(1987). 집합주택에 있어서 Life-Cycle에 따른 거주자들의 주생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 3권 3호. PP.81-92.
- 최찬환(1987). 한국의 농촌과 도시 주거양식의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鈴木成文(1975). 順應型 住宅の 研究Ⅱ. 住宅建築研究所報. 新住宅普及會. PP.25-39.

西山卯三(1959). 住宅間の 型. 新建築.

Bechtel,R.B.(1989).Behavior in the House :A Cross-Cultural Comparison Using Behavior-Setting Methodology. *Housing Culture and Design*. ED. Seta M. Low and Erve Chamber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Lawrence,R.J.(1979). The Organization

of Domestic Space, *Ekistics*, Vol.46, No.275. PP.135-140.

Lawrence,R.J.(1984). Transition Spaces and Dwelling Design,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No.1. PP.261-271.

Smith,Sandy G.,(1994). The Psychological Construction of Home Lif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Vol 14. PP.125-136.